

연극 한 편, 알찬 송년

광주지역 연말 연극 풍성 원로예술인 총출동 '오리...' 배우 인생 다룬 '광대...' 등

연말연시 관객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전해줄 다양한 연극들이 무대에 오른다.

오는 21일~23일 오후 7시30분 공동예술극장에서는 연극 '오리 장대 위로 날다'가 열린다.

원로예술인들이 모여 준비한 이번 연극은 200년 째 집대(숯대)를 세우고 있는 화순군 동북면 가수리 마을을 배경으로 한다.

음력 2월 초하루 아침, 마을의 가장 큰 행사인 숯대 세우기를 준비하는 마을에 사는 광씨와 삼식은 축량 기사를 데려오게 되고 마을은 술렁인다. 개발을 바라는 이들과 전통을 고수하고자하는 이들 사이의 갈등, 마을을 떠나려는 이들과 지키려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 속에서 숯대는 부서지게 되고 갈등의 골은 깊어간다.

연출은 원광연이 맡았으며 원로배우 김종진, 윤광열, 정관섭, 조영철, 김상섭이 출연한다. 또 노희설, 정경아, 류지영, 김경숙 등이 등장한다. 원광연 연출자는 "숯대는 하늘과 인간을 이어주는 가교이며 이 땅을 지켜왔던 선조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며 "200년 넘게 숯대를 세우고 있는 한 마을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화상과 진정으로 우리가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연극 '광대의 꿈 소풍'은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오후 7시30분 광주시 동구 예술의 거리에 있는 예린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연극은 '삶이 아름다운 이유는 살아가는 때 순간마다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주제를 담았다.



연극 '광대의 꿈 소풍'의 한 장면.



연극 '오리 장대 위로 날다'에 출연하는 배우들의 모습.

'광대의 꿈 소풍'은 작가이자 출연자 윤여송의 자전적 이야기다. 1980년대 악몽 같았던 삼청교육대에서의 기억을 잊기 위해 연극에 빠져들어 현실 속에 묻히는 것을 거부하고, 평생을 연극 무대에서 살아온 노 배우의 삶의 궤적을 따라 인생의 의미와 우리 시대 예술의 가치를 되새겨 보고자 기획됐다.

연극은 일생을 바쳐 지켜온 자그마한 소극장에서 마지막 공연을 끝내고, 지나 온 여정을 되돌아보며 추억에 잠긴 노 배우의 등장으로 시작된다. 자신의 삶이 녹아 있는 무대를 바라보며 긴 여정의 끝자락을 마무리하려고 할 때, 잊고 지냈던 후배가 극장을 방문한다. 어색한 만남에 잠시 망

설이던 두 사람은 이내 소주잔을 기울이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토해내고, 점차 연극에 빠져들었던 20대의 정춘으로 돌아간다.

한중곤이 연출을 맡았으며 한경모 역에 윤여송이, 박상현 역에는 임홍석이 출연한다. 문의 062-223-2690, 010-4123-6080.

광주시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씨어터 연바람'은 연극과 공연, 극장과 무대, 배우와 관객을 이어주는 프로그램 '연극 있다 있다'를 진행 중이다. '씨어터 연바람'은 지난 1996년 동명동 연바람 소극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온 공연예술공간이다. 신세대 연출가의 작품을 선보이는 '2인배우연출가 극장전'에서는 박세련 작

■광주지역 연극 공연 계획

오리 장대위로 날다 21~23일 공동예술극장	광대의 꿈 소풍 22~30일 예린소극장
그사람은요 19~20일 씨어터 연바람	흑백다방 22~23일 씨어터 연바람
안티고네 29~30일 씨어터 연바람	찌질하지만 로맨틱하게 ~2018년 1월7일 중앙아트홀
그남자 그 여자 ~2018년 1월21일 상무지구 기본좋은극장	

가가 '그사람은요'를 선보인다. 19일~20일 오후 7시30분, 관람료 1만원.

또, 예술성과 대중성이 어우러지는 작품을 선보이는 '오색빛깔 오색마당 극장전'에서는 서울극단 '후암'이 '흑백다방'을 준비했다. 오는 22일 오후 7시30분, 23일 오후 4시.

광주극단 '푸른연극마을'의 '안티고네'는 오는 29일 오후 7시30분과 30일 오후 4시에 열린다. 문의 062-226-2446.

이밖에 연극 '찌질하지만 로맨틱하게'는 2018년 1월 7일까지 중앙아트홀에서 열린다. '나'를 짝사랑하는 인물과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옛사랑의 유령이 주인공을 두고 삼각관계를 그려내는 로맨틱 코미디 연극이다. 김해웅, 신명진, 권찬미, 이정준, 김준수 등이 출연한다.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6시에 진행된다. 문의 1600-6689.

상무지구 기본좋은극장은 설례는 사내 커플과 꽃꽂이 대학생 커플을 통해 이 시대 청춘들의 사랑을 그린 작품 '그남자 그 여자'를 진행 중이다. '그남자 그 여자'는 2018년 1월21일까지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6시에 시작한다. 문의 1600-6689.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김한아 가야금독주회 오늘 전남대 지음홀

김한아가야금독주회가 19일 오후 7시 전남대 예술대 지음홀에서 열린다.

9번째 독주회인 이번 연주회에서 들려주는 곡은 '성금연류가야금산조'다. '성금연류가야금산조'는 현재 연주되는 가야금산조 중 가장 긴 산조이며 화사하고 경쾌한 가락을 자랑한다. 다른 산조에 없는 굿거리가 삽입된 점과 마지막을 4장단 잇모리로 마무리 짓는 점이 특징이다.

김씨는 전남대 국악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광주시립국악현악단 차석으로 활동 중이다. 전남대 국악학과 겸임교수, 광주예고 강사, 광주가야금연주단 부단장, (사)최옥삼류 가야금산조 보존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제6회 한밭가야금경연대회 최우수상, 제15회 전국국악경연대회 대상 등을 수상했다. 문의 010-2992-5398.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시를 통해 마주치는 나의 삶

신덕룡 교수 평론집 '풍경과 시선' 발간



시인이자 평론가인 신덕룡 교수(광주대학교 문예창작학과)가 평론집 '풍경과 시선'(문학평론사)을 발간했다.

글쓰기가 '존재증명'의 욕구에서 비롯됐다고 믿는 저자는 시라는 텍스트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사색하면서 시인들의 세계관과 시세계를 탐구하고 있다. 이번 평론집은 2017년 하반기 세종도서 문학나눔에 선정되기도 했다.

1부 '낯선 언어들'에는 오규원, 김영석, 강인한, 김달진, 김준, 이하은 시인들의 시적 특성과 변화를 밀도 있게 해석한 글들이 담겨 있다. 2부 '표정'에는 이동순, 손남숙, 이숙현, 금별피, 최재섭 시인 등의 시집에 대한 해설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3부 '문학과 삶의 맥락'에는 시와 시인에 대한 해설보다

는 좀 더 유연하게 작품과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글들로 구성돼 있다.

저자는 오래 전 알게 된 이명중으로 긴 호흡의 평론보다는 시 쓰기에 몰입해 왔다. 그래서인지 평론을 쓸 때마다 필수적인 시와의 거리두기보다 텍스트에 어느새 동화돼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곤혹스러웠음을 토로한다.

저자는 "풍경(대상)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는 이미 시인의 경험과 고뇌, 세계관이 녹아 있기 마련이다"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작업이 나 자신이나 나의 삶과 마주치는 일이라는 사실이었다. 결국, 시를 매개로 나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셈"이라고 밝힌다.

신 교수는 경희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1985년 '현대문학'에 평론으로, 2002년 '시와시학'에 시로 등단했다. 평론집 '문학과 진실의 아름다움', '생명시학의 전제'와 시집 '소리의 감옥', '하멜서신' 등을 펴냈으며 김달진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진기자 skypark@kwangju.co.kr

'82년생 김지영' 출간 14개월 만에 50만부 판매

조남주 작가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출간 14개월 만에 판매부수 50만부를 기록했다.

'82년생 김지영'을 펴낸 민음사는 18일 이같이 밝히며 "단권으로 1년여 만에 도달한 50만부 기록은 한국 소설 분야에서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성취"라고 설명했다.

'82년생 김지영'은 지난해 10월 출간됐지만 올해 4월까부터 뒤늦게 인기를 끌기 시작한 '역주행 도서'로 화제가 됐다. '오늘의 작가상'과 '양성평등문화상',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선정 올해의 책' 등에 선정됐다. /연합뉴스



윤상원 열사 생전 모습

창작판소리 '윤상원가' 21일 광산문예회관에서 시연

창작판소리 '윤상원가(歌)' 시연회가 오는 21일 오후 4시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윤상원가(歌)'는 5·18 항쟁 지도부의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한 윤상원 열사의 이야기를 판소리로 창작한 작품이다. 윤상원 기념사업의 하나로 광산구와 (사)윤상원기념사업회가 기획한 이번 작품은 윤상원 열사 그리고 그와 함께 항쟁에 참여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노래한다.

윤상원 열사는 광주시 광산구 임곡에서 태어나 노동자 야학인 '들불야학'에서 활동하다가 5·18 민중항쟁이 일어나자 계엄

군에 맞서 마지막까지 도청을 사수하며 장렬히 순화한 인물이다.

윤상원의 벗이자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인 임진택이 사설과 작창을 맡았다. 민중문화운동 1세대인 임진택은 5·18 민중항쟁 10주년이 되던 1999년, 황석영 작가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를 원전으로 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의 항쟁을 판소리로 풀어낸 '오월광주'를 만든 바 있다.

1부 '소리꾼 윤상원'과 2부 '시민군 윤상원'으로 구성된 창작판소리 '윤상원가(歌)'의 이번 시연회는 '소리꾼 윤상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연 이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2018년 2월 2일 진행되는 창작 초연 공연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시연회에서는 임진택의 농익은 소리, 구수한 아니리와 함께 지난 9월 공개모집으로 선발한 5명의 청년소리꾼이 패기 넘치는 소리를 선보인다. 교수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고법 전수조교 박시안이 맡는다.

광주의 '오월' 이야기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62-960-8833, 062-234-1123.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www.aroma-life.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속옷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를 받은 유니크한 디자인과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옥각형)사용 및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효과)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건강을 생각한 속옷입니다.

아모리이온



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이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 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 아모르



러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

대표전화 1588-2219